

2019년 5월 1일, 서귀포시 영천동(상효동) 상효동마을회관, 오창순 조사.

제보자1: 양유정(여, 1938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제보자2: 김춘옥(여, 1939년생, 서귀포시 상효동)

- 서귀포시 토풍동 출생으로 25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상효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일곱 형제의 아버지가 바람이 났는데 작은부인이 본처를 죽이고 아픈 척하며 일곱 형제의 간을 먹어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. 일곱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는데, 작은아들에게 들켜 죽어서 뜬통에 버려진다. 그래서 큰부인이 있는 부엌과 작은부인이 있는 변소는 멀어야 좋다고 한다.

[제보자1] 들어난 옛말이 무신 것산다.

[조사자] 굿사 골아난 것추룩 골읍서게.

[제보자1] 하르방이영 큰어멍이영 살안 아덜 일곱 개나 신디 하르방이 보름 피완 족은각 실 헤부난 족은각시가 큰어멍이영 목욕허레 갓어. 게난 그게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. 난 주청비가 주청비야 주청비야 노래하는 걸 봐나 부난 등어릴 미는디 큰 어멍이 족은어멍 등어릴 밀어 주젠 허난 족은어멍이 성님 무사 성님을 내비동 내가 나 등어릴 밉니까 헤네 등어리 미는추룩 허당 큰어멍을 거려밀려 부난 큰 어멍은 죽었어. 죽어부난.

[제보자2] 냅가에서. 것도 내창에.

[제보자1] 내에 물에서 죽어 부난.

[제보자2] 거 미신 소엥 알라 몬 골아낫인디 우린 못 골아.

[제보자1] 집이 오난 남자 생각엔 족은어멍이 아니 아파도 아프노렌 허멍 탁 들어누난 족은각시가 큰각신 죽어부난 드러누원 허는 말이 소나이안티 허는 말이 아덜 일곱성제 애 내영 왕 먹으민 좋으肯 경 골으난. 게민 애 내어당 주肯, 게네 산에 간 보난 산도새기 일곱 애 내당 주난 초석 끌안 눈디. 초석 끌안 눈 디서 애내다 주난에 그걸 이젠 먹는추룩 먹는추룩 허멍 몬딱 초석 알더레 묻어부난.

[제보자2] 으쌰겡 허곡.

[제보자1] 게메 으쌰겡 묻어부난.

[제보자2] 씨깝으로 놔뒀던 허주게 혼난.

[제보자1] 소나이가 와네 허는 말이

“다 먹었어?”

허난 다 먹었인디, 혼나 더 먹어사 좋으肯 했우덴. 그 말을 대답허난, 그 말 대답허는 걸 아덜이 족은아덜이 봉단 바깟디서.

[제보자2] 이런디 몬 중창에서.

[제보자1] 봉다네 들어오라네 성님 대듭서, 그 사름이 젤 족은아덜 아니. 두 번째도 대듭서, 세 번째도 대듭서, 네 번째도 대듭서, 다섯 번째도 대듭서, 으쌰 번째도 대듭서, 일곱째 이젠 그 사름 빼민 으쌰 개주. 맘 성 빼민 으쌰 개 일곱 개가 다 대드난, 보난 초석 아래 곱앗이나네 그 사름 허운데기 심언, 족은어멍, 족은어멍 허운데기 심어 메어 불곡 허난, 몬 족은어멍이 죽으난에 이빨은 뿐안 바당덜에 데끼난, 대수알이 웨불곡, 손콥은 빤 데껴부난 굼벗딱지가 웨불곡, 족은어멍은 화장실 아고 벤소 아 뜯통 뜯통 웨불곡, 큰어멍은 정제가 됨 거라.

개난 우리가 살민서 정제허곡 부엌 ?찌 못허는 것이 큰어멍은 정제서 곱게 살곡 족은어멍은 디딜팡 아래 사난에 족은어멍은 도새기 똥 그 먹는 사름이 웨부난 그 그디서 헤난 부지땡이도 앗어당 옛날에 불도 못 숨곡.

[제보자2] 부엌에서 화장실에도 못 가곡.

[제보자1] 부엌에 건 뜯통에 가곡, 먹덩 거 뜯통에 강 도새기 줘도 먹곡. 먹어도 탈이 업곡 큰어멍이니까 족은어멍에치 쓰당 거는 큰어멍이 오랑 먹으민 탈 낭으네 우리 옛날에 그것?라 미시거엔 골읍니까. 막 물 주엉으네 뻥 구완허는 것?라 뭐엔 골읍니까. 잊어비연 못 골아지크라 그 말을.

[제보자2] 물 주엉 허는 것 골아.

[제보자1] 동티낫젠. 족은어멍에 거 쓰당 거 큰어멍신디 아정 왕 쓰나 먹으나 헹은 동티경 사름이 몬 아팡 죽어가. 게민 그 동티를 큰어멍이 그 동티를 구완혜영 뜯통덜에 앗당 몬 데껴불민 그 동티도 좋곡, 큰어멍이 허면 큰어멍 상에 큰어멍이 허면 존 디. 족은어멍에 죽은 사름 족은어멍에 큰어멍 큰어멍신드레 허민 하나

도 죽일 수도 업곡. 아무거 헤 볼내기가 엇인 사름으로 살았주게. 난 그게 귀일이 떨이엔 헌 것이 어멍인가 원원 아방인가 몰라.

[제보자2] 그 족은각시어멍이 노일저대귀일이떨이엔 곤주. 족은할망이 귀일이 떨. 그 귀일이 떨 엔 헌 할망이 떨을 그 세 번차 각시로 보내멍 노일저대귀일이떨 경 굴아 낫주만은 원 그걸 경 다시 되풀이헐 중 알았이민 아 이때 어른덜 곤는 걸 잘 들을 걸.

[제보자1] 시집온 후제 심방질허멍도 협디다마는.

[제보자2] 심방질허멍도 헷주게. 이디 ○○이 할망.

[제보자2] 그 할망이 허는 거 들었주게.

[제보자2] 구짝 헤낫주게. 경혜도게 그걸 경 되풀이헐 중 알았어. 게난 이걸 중간으로 굴 아짐 어떻험 몰르는 거주게.

- 핵심어: 일곱 성제(일곱 형제), 큰각시(큰부인), 족은각시(작은부인), 둋통(변소), 정제(부엌), 산도새기(산돼지), 애(간), 동티(동토), 노일저대귀일이떨(노일저대귀일이딸), 심방(무당)